혈세 지원 아침건강검진센터, 병원들 배만 불린다

광주시 3곳 지정 운영
1곳당 연 2000만원 지원
새벽 진료 한곳도 없고
홍보안돼 이용자 극소수

광주일곡병원 등 일부 병원이 새벽 6시부터 운영하는 '아침건강 검진센터(아침센터)'로 지정됐지만 운영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다.

아침건강 검진센터의 운영실적을 총체적으로 점검·재평가해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운영 병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병원은 광주시가 지난 3년간 수억원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불편 등으로 인해 폐쇄된 야간건강검진센터(야간센터)도 운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9일부터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아침센터로 광주일곡병원(북구 양일로)과 은병원(북구 동문대로)·서광병원(서구 금화로) 등 3곳을 지정·운영중이며, 지난 19일 기준으로 병원 1곳당 하루 1명꼴도 안 되는 8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시는 이들 3개 병원과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 건강검진, 암 검진 등 국가건강검진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병원 1곳당 연간 홍보·운영비로 20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협약한 상태다.

하지만, 이들 3개 병원은 아침센터에 대한 홍보는 커녕 운영시간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

우선 3개 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아침센터 운영을 알린 곳은 은병원 단 1곳이며, 은병원 조차도 오전 7시30분부터 건강검진을 한다고 공지돼 있다. 이는 사실상 오전 진료나 마찬가지로,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받고 출근을 할 수 있도록 한 아침센터의 설립 취지와도 배치된다.

특히 광주일곡병원은 '이용자가 없다'는 이유로 매주 화·목요일 두 차례만 아침센터를 운영하는 꼼수를 쓰고 있으며, 이마저도 암 검진이 포함되면 기준보다 2시간 늦은 오전 8시부터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광병원도 오전 8시30분부터 건강검진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운영후 이미 폐쇄된 야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까지 올려놨다.

시는 앞서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오후 6시이후부터 밤 9시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야간센터 3곳을 지정·운영했다가 시민의 외면을 받아 폐쇄한 뒤 아침센터로 전환했다. 시는 야간센터에만 총 1억7400만원을 지원했으며, 당시 이들 3개 병원이 동일하게 지정됐었다.

시민들은 일반 병의원에 비해 규모가 큰 병원들이 사회공헌사업은 못할망정 예산까지 지원받으면서도 운영은 뒷전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4일 아침센터 이용을 문의한 시민 A씨는 "아침 6시부터 운영한 줄 알고 예약하려 했으나 8시30분 이후에 오라며, 꼭 그 시간에 해야 되냐며 되물었다"고 황당해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북구, 중기·소상공인 사랑운동
3년간 일자리 2만개 만들었다

광주 북구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면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북구는 지난 2010년부터 시제품 제작·브랜드 디자인 개발·지식재산 권리·이노비즈(INNO-BIZ) 인증 획득·소상공인들을 위한 1인 창조기업 육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모두 211곳에 13억7400만원을 지원했다.

이들 사업은 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친기업 정서 확산·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소상공인 지원 등 북구 기업사랑 운동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1년 6303개를 시작으로 ▲2012년 6791건 ▲지난해 6828건 등 해마다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지난 3년간 1만9922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기업사랑 운동을 적극 추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12년 '지역브랜드 일자리사업 우수기관', '지방 물가안정관리 우수기관', '노사민정 활성화사업 국무총리상' 수상으로 경제분야 3관왕을 달성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문화전당 주변 공실 문화공간 활용

공·폐가→게스트하우스 빈 고시학원→갤러리

市, 25억 들여 8곳 조성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의 빈 건물과 주택을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등 전당 건립에 따른 문화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광주시는 내년에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을 국가 기관이 운영토록 관련법 개정에 힘을 모으고, 주변 공·폐가와 공실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키로 했다.

광주시는 24일 문화전당 현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화전당 및 전당주변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및 7대 문화권 사업추진 현황, 전당주변 공·폐가, 공실 활용방안 등 세부적인 추진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공정률 84%를 보이고 있는 문화전당은 2015년 상반기 예정대로 개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개관에 필요한 운영 조직이 국가기관으로 책임있게 조속히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주력기로 했다.

문화전당 개관 이후는 7대 문화권 조성 등 광주시의 문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집중할 시기로, 우선 문화전당권 주변의 방치된 공가·폐가·공실을 레지던시나 게스트하우스, 소규모 박물관으로 활용하는 등 문화전당 주변을 문화적 환경으로 조성해 문화전당권에서 발산된 문화에너지가 양림동 일대의 문화교류권을 통해 시내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공·폐가·공실을 활용한 문화시설 조성사업은 우선 내년까지 25억원을 투입해 8곳을 조성한다.

먼저 1단계인 올해 말까지는 대의동·남동·동명동 지역의 4곳을 선택해 비어 있는 고시학원은 갤러리 등 문화복합공간으로, 동명동의 공가는 게스트하우스로, 기타 공간은 생활사박물관 및 촛대박물관으로 조성한다.

2단계로 내년엔 충장로 권역의 건물 4곳을 창작자 작업실, 공방, 연습실 등으로 조성하며, 2016년에는 동명동·대인시장·사직공원·푸른길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4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광주시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한 '문화콘텐츠 산업'을 문화전당과 혁신도시 문화 관련 기관, 송암동 CGI센터를 삼각벨트로 연계해 집중 육성하고, 문화전당 개관과 KTX 개통을 대비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문화전당권 주변 활성화를 위해 예술마을 신탁센터 법인 설립과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암 조기검진 받으세요

광주시와 5개구 보건소 직원 등 50명은 최근 '제7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광장에서 암 예방과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쳤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공공디자인 위원 17명 공모 내달 10일까지 접수

광주시가 오는 4월10일까지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 한다.

공모 인원은 ▲디자인분야 6인 ▲건축분야 6인 ▲도시경관분야 3인 ▲조경분야 1인 ▲환경분야 1인 등 17명이다.

공모 자격은 건축·도시계획·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조명·광고물 및 디자인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면 가능하다. 또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기존 위원 일부는 재위촉 가능하다.

응모 서류는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 또는 도시디자인과 홈페이지(http://designcity.gwangju.go.kr)에서 내려받아 기타 서류와 함께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kkt92@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을 선정하고, 4월 중순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는 광주시 도시디자인과(062-613-4873)로 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08년 1월1일 공공디자인조례를 제정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설치하고자 하는 각종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 총 61회에 걸쳐 262건의 심의와 자문을 시행했다.

/채희종기자 chae@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로 교체하면
광주시 최대 200만원 인센티브 지급

광주시는 지하주차장 조명을 LED로 교체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최대 2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ESCO(Energy Service Company·LED조명으로 교체하고 매월 전기요금 절감분으로 비용을 상환) 방식 또는 자체 비용으로 교체한 아파트다.

다만 시 또는 자치구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교체한 경우나 2013년 이전에 교체한 아파트는 제외된다.

인센티브는 에너지절감, KS와 고효율 인증, LED조명 교체비용 등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을 공고하고 아파트별로 신청을 받아 4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아파트는 광주시(062-613-3741) 또는 한국광산업진흥회(062-605-9643)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한국광산업진흥회에 제출하면 된다.

24시간 조명을 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LED조명 교체 비용을 3~4년 이내 회수할 수 있는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

광주시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절감 효과가 뛰어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과 달리 보급이 더딘 민간부문 LED조명 확대를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조명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월 현재까지 LED조명으로 교체하기 위해 컨설팅을 신청한 106개 아파트 단지 중 43개 단지의 형광등 1만950개를 교체해 연간 1342kWh 전력량을 줄이고 2억8200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했다. 이를 CO2로 환산하면 630톤으로 소나무 13만여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 /채희종기자 chae@

내달 중순까지 차선·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60곳 정비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시민의 도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4월 중순까지 차선과 교통표지판 등을 일제 정비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도로노면, 차선, 교량, 도로표지판 등 시설물 60곳이다.

시는 주요 도로의 노후화로 울퉁불퉁한 곳이 많다는 의견에 따라 무진대로, 남문대로, 서하로 등 11개 노선을 재포장하기로 했다. 이번 정비기간 중 불편하거나 건의할 부분이 있는 시민은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과(062-613-6942, 6952)로 연락하면 된다. /박진표기자 lucky@